금주의 법구-〈법집요송경〉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려라.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믿음이다.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1월 2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27호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불교 홍보·성보 보존’ 거점 내년부터 건립 본격 가시화

2017년 불교 관련 정부예산 살펴보니

조계종이 세종시와 위례신도시에 진행 중인 신도시 핵심거점 사업이 2017년 정부 예산지원에 포함됐다.

본지가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등으로부터 불교관련 예산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 불교관련 정부 예산은 불교문화재 보존 보수 포함 13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행사 및 사업을 총괄하는 종무실 예산은 402억 원이며 세종시 한국불교문화 홍보체험관 건립에 5억 원, 천안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9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세종 · 위례 거점 사업 START

먼저 세종시 한국불교문화 홍보체험관 건립사업은 조계종이 진행하는 핵심 거점 사업 일환이다. 조계종은 연기면 세종리 일대에 종교용지 5000평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들어설 한국불교문화 홍보체험관은 총 사업비 180억 원 규모로 2017년 예산은 16억 7000만원이다. 이중 5억원이 정부 지원이다.

심주완 조계종 문화부 신도시TF팀장은 “지자체 예산이 나오면 세종시 불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년 예산과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건립 계획 수립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안 전통문화체험관은 2017년 단년도 예산으로 천안 성불사 인근에 건립될 예정이다.

새해에는 불교문화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조계종이 위례신도시에 건립하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사업은 세종시 한국불교문화 홍보체험관 건립사업보다 구체화됐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총 200억 원이 건립에 소요된다. 새해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6월 경 착공될 예정이다. 2017년 예산은 78억 원으로 문화재청 예산 54억 8000만원이 배정된 상태다.

조계종 문화부 신도시TF팀의 건립계획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불교문화유산

세종시 불교문화홍보관 5억원
위례 유산보존센터 54억원 지원
10.27기념관 건립, 부지매입 관건

보존센터에는 목조, 석조, 금동 등 불상과 불화 전문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

법난 기념사업은 과제 산적

세종 · 위례신도시와 달리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토지 매입 및 기념관 건립이 병행되는 10 · 27법난 기념사업은 부지 매입 지연 속에 예산 불용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문체부 10 · 27법난위원회(위원장 지현)에 따르면 2017년 예산은 227억 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10 · 27법난위원회는 2016년 7월 1일 국무총리 산하에서 문체부 종무실 산하로 이관돼 연구와 교육, 기념관 설립,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난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48억 5000만원 예산 중 부지매입에 12억 1282만원, 기본계획에 2억 7200만원이 사용됐으며, 2016년 632억 9200만원 중 부지매입에 10억 6893억 원이 사용됐다.

법난위원회 관계자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파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0 · 27법난 기념사업은 부지매입에 민간보조 형식으로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부지매입을 담당하고 있다. 부지매입 협상으로 인한 예산미집행에 대한 부담을 조계종이 떠안은 형국이다.

전통문화 개발 지속 지원

이번 정부의 예산안에는 전통문화 세시풍속 보존에 대한 지원 내역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안에는 전통불교문화행사 명목으로 25억 7500만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제종교교류에 3억 1500만원, 전통불교문화축전에 15억원, 연등축제 활성화 지원에 12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또 문화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보수 및 보존 관련 예산은 8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기획재정과 김응서 사무관은 “현재 지자체 문화재 예산을 취합하고 있다. 폐사지 비지정 문화재 조사, 사찰 대형불화 조사 등을 포함한 2016년 불교 관련 문화재청 예산은 총 810억 원으로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종교 상생과 화합의 燈 밝혔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 앞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엄으로 환히 빛났다. 조계종은 12월 13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희중 대주교 등 이웃종교인,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국민들에게 상생과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사진은 조계사 어린이 합창단과 종교인들이 따뜻한 사회를 의미하는 하트 손모양을 하는 모습이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물새는 영주댐, 계속 두면 안 된다”

지율 스님 ‘영주댐 철거訴’ 패소… 즉각 상고 계획

서울고등법원은 12월 15일 지율 스님이 항소한 ‘영주댐 철거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서 “영주댐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해달라”는 지율 스님 외 18명에게 원고 패소 결정을 받은 후 2심서도 패소한 것. 지율 스님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상고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지율 스님은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물 새는 영주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영주댐 철거소송 및 영주댐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지율 스님은 “오늘 재판 결과를 들었는데 ‘기각’이란 말과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하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과거엔 최소한 왜 졌는지 이유는 말해줬는데 씁쓸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패소하더라도 피고 측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영주댐의 가치와 사업의 당위성 등에 대한 자료를 피고 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고운 모래가 가득했던 영주댐 인근 지천은 굵은 모래가 생기고 풀들이 자라나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다. 그러자 주민들은 풀과 땅을 갈아엎고 땅은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영

댐 인근 지천 황폐화 가속
연약 지반이라 안전 위험도

주댐 상황을 담은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 원고(대한민국 · 수자원공사 · 시공사 삼성물산) 측은 ‘댐으로 인해 오히려 강이 더 넓어지고 모래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란 변론만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율 스님은 “현재 영주댐에 균열이 생겨 물이 스미어 올라오고 있다”며 “콘크리트 벽에 첫 균열이 발생한 후 인부가 누수를 막는 작업을 했다. 그러나 며칠 후 바로 옆에 새 균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원은 우리의 주장이 그저 감성적일 뿐이라 치부하며 댐에 물이 샐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지율 스님은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이 싸움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판결서가 송부된 직후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오경섭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도 “영주댐은 단층대의 연약지반에 건설돼 아무리 구조물을 단단하게 만든다 해도 안전과 기능을 보장할 수 없다. 댐 완공 후 현재까지 수직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균열들을 따라서 물이 새고 있다”고 지율 스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사찰 ‘거짓 기부금 영수증’ 올해도 기승

국세청, 거짓 영수증 발급 적발 명단 공개

58곳 중 46곳이 불교 사찰
수수료 받고 영수증 발급도

올해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된 단체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에는 불교계 사찰이 대거 포함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최근 2016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58곳이 적발됐다. 이가운데 종교단체는 48개로 전체의 83%에 달한다. 이밖에는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가 2개로 나타났다. 전체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 5곳이 감소했지만, 검찰에 고발한 단체 수는 4곳에서 7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적발된 종교단체 48곳 중 46곳이 사찰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사찰도 다수 있었다. 태고종의 경우 6곳의 사찰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들은 신생종단 사찰들이어서 범불교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거짓 기부금 영수증 적발 사례 중에는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써준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향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한 철저한 명단 공개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1127호 INDEX

시방세계 5
생명나눔실천본부 따뜻한 정 나누기 현장



道伴의 향기 14 · 15
제주 삼광사 덕희봉사회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초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 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